

김태준과 연안행

장 문 석*

[국문초록]

이 글은 김태준의 『연안행』을 독해하고자 한다. 김태준은 1946년 당시 남조선노동당과 조선문학가동맹의 정치적 입장에 근거하여 1944년 11월 자신이 연안(延安)으로 탈출한 여정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연안행은 주체의 이동일 뿐 아니라, 언어의 횡단이기도 하였다. 그는 국경을 넘으면서 동아시아 언어들이 서로 교차하고 충돌하는 복잡한 언어 상황을 통과하였다. 또한 김태준은 연안행을 통해 지식인과 민중, 그리고 이성과 감성 등 문학의 근본적인 조건과 그 아포리아를 탐색할 수 있었다. 김태준이 연안행을 통해 발견한 다양한 사유와 실천의 계기를 재해석하는 것은 현재적인 과제이다.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원

주제어: 김태준, 박진홍, 연안행, 태평양전쟁, 해방공간, 조선문학가동맹, 굴절된 ‘공동전선’, 반파시즘 인민전선, 민주주의, 박헌영, 신명균, 국제주의, 동아협동체, 『개조』, 『지구전론』, 마오쩌둥, 동아시아, 일본어, 중국어, 한문, 투르게네프, 『그 전날 밤』, 조명희, 지식인, 민중, 이성, 감성
金台俊, 朴鎮洪, 延安行, 太平洋战争, 解放空间, 朝鲜文学家同盟, 曲折的共同阵线, 反法西斯人民阵线, 民主主义, 朴宪永, 申明均, 国际主义, 东亚协同比, 《改造》, 《论持久战》, 毛泽东, 东亚, 日语, 古代汉语, 屠格涅夫, 《前夜》, 赵明熙, 知识分子, 民众, 理智, 情感。

1. 서론

필자는 1944년 11월 경성(京城)을 출발, 45년 4월 5일 연안(延安) 도착, 8월 15일 일제(日帝) 패퇴 후, 9월 4일 연안을 출발, 11월 하순 경성에 도착. 이것은 연안여행의 기억을 더듬어 쓴 것이다. (①:187)¹⁾

1946년 7월 15일 조선문학가동맹의 기관지 『문학』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창간호 『문학』의 끄트머리에는 ‘특별연재’라는 형식으로 김태준의 『연안행』 첫 연재분이 실렸고, 그 첫 머리에서 김태준은 1944년 11월에서 1945년 11월까지 1년 남짓한 ‘연안행’의 여정을 위와 같이 간략히 소개하였다. 하지만 처음의 소개와는 달리, 그는 자신의 일정을 온전히 활자화(活字化)할 수 없었다. 『연안행』 2회분이 실린 『문학』 2호는 1946년 11월 25일에 간행이 되었고, 3회분이 실린 『문학』 3호는 1947년 4월 15일에 간행이 되었다. 그리고 『연안행』의 3회분이 연재되는 동안 저자인 김태준 뿐 아니라, 해방공간의 주체들은 급박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수차 ‘목숨을 건 도약(salto mortale)’을 수행해야 했다.

1회분이 연재된 직후인 1946년 8월 초 조선공산당, 신민당, 인민당의 합당 제안과 수락이 있었지만, 합당을 둘러싼 갈등은 그 이후 오히려 심해졌다. 결국 그해 11월 남조선노동당이 창당되었지만, 신민당의 백남운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다. 그 이전에 이미 10월 초 박헌영은 월북한 상태였으며, 10월 항쟁은 고조되고 있었다. 미군정은 10월 항쟁으로 신분이 노출된 남로당 간부 박승원, 이원조, 임화, 박치우, 문용식 등과 합

1) 김태준(1946), 『연안행』 (1), 『문학』 1, 1946.7., p. 187. 『연안행』은 『문학』 1호(1946.7.), 『문학』 2호(1946.11.), 『문학』 3호(1947.4.)에 연재되었으며, 미완이었다. 이 글에서 김태준의 『연안행』을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연재회수와 면수를 표기하겠다. 또한 의미 전달의 어려움이 없는 한 한자는 한글로 고쳤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였으며, 띄어쓰기를 했다. 또한 고유명사 표기에서는 인명은 각 나라의 발음을 살렸으며, 지명과 서명은 한국식 한자어 발음을 따랐다.

게 김태준을 지명수배하였고, 결국 이들은 1947년 1월 새로 설치된 해주 연락소와 38선 이남을 오가며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²⁾ 백남운이 여운형과 함께 근로인민당 창당에 착수하며 정치적 실천을 재개한 것 역시 그 즈음이었다.³⁾ 1947년 7월 14일 『문학』 공위재개 기념특집호가 발간되지만, 여기에 「연안행」 4회분은 실리지 못하였다. 같은 해 8월 15일을 얼마 앞둔 때, 김태준은 허헌, 이인동, 김오성 등과 함께 미군정에 의해 체포 및 수감되었다.⁴⁾

3번의 연재로 그쳤기 때문에 김태준의 「연안행」은 그 자신이 연안에 도착하던 상황까지를 포함하지 못하였고, 1944년 11월 27일로부터 1945년 1월 23일까지 2개월 정도의 여정을 쓰는 데 그치게 된다. 『문학』 3호의 권두 광고는 아문각(雅文閣)에서 『연안행』을 출간할 것을 알리며, 이후 『문학』 공위재개 기념특집호(1947.7.)의 권말에도 그 책의 광고가 실린다.⁵⁾

2) 임경석(2003), 『이정 박현영 일대기』, 역사비평사, p. 393.

3) 박병엽 구술(2010), 유영구·정창현 편, 『김일성과 박현영 그리고 여운형』, 선인, p. 262.

4) 현대일보(1947.8.15.); 김용직(2007), 『김태준 평전』, 일지사, p. 367. 재인용.

5) 『문학』 3호에는 ‘아문각(雅文閣)’에서 ‘근간발매예고’라는 표제 하에 임화의 『문학론』, 안희남의 신작 장편소설 『조국에 바치는 날』, 김남천 소설집 『삼일운동』, 현덕 소설집 『남생이』, 홍구 소설집 『유성』 등과 함께 광고되었다. 『문학』 공위재개 기념특집호에는 아문각에서 ‘조선문학가동맹출판물소식’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여기에는 소설부위원회(小說部委員會)가 편집한 『조선소설집』, 시부위원회(詩部委員會)가 편집한 『조선시집』, 농민문학위원회(農民文學委員會)가 편집한 농민소설집 『토지』 등과 함께 광고되었다. 광고에 『조선시집』은 이미 ‘발매중’이고, 『조선소설집』은 ‘7월 중순 발행’, 『토지』와 『연안행』은 ‘7월 하순 발행’으로 나온다. 『연안행』을 제외하고는 발매되었다.

김 태 준 저	46판 225엽(頁) 임시 정가 200원(圓) 7월 하순 발행
연안행	
<p>저자 김태준씨는 일제 밑에서 굴욕적인 생활을 피해 멀리 중국해방지구인 연안(延安)까지 다녀왔다. 그 동안에 겪은 체험과 전문은 원래 탁월한 세계관을 가졌고 박학한 씨(氏)에게 중국인민들이 나가는 길을 똑바로 보게 하였다! 그뿐 아니라 이 책은 첨부터 끝까지 한숨에 읽도록 많은 사건이 널려 있고 아슬아슬히 마치 소설을 읽는 것 같이 흥미진진하기도 하다</p>	

구체적인 판형과 면수와 판매 금액까지 나온 것으로 보아, 연재를 전후하여 김태준이 『연안행』의 원고를 탈고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광고가 이 책을 소개하는 지점은 세 가지이다. ① 그가 조선 반도를 탈출하여 연안에 다녀왔다는 점, ② 그곳에서 박학(博學)한 김태준이 중국인민의 행보를 보았다는 점, ③ 마치 소설을 읽듯 서술이 아슬아슬하다는 점. 물론 단행본 『연안행』이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①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연재된 부분만으로도 광고에서 말한 ②와 ③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다. 광고에서처럼 『연안행』은 ‘일제’ 말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지만, 동시에 해방공간 김태준의 정치적 실천 및 문화적 기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기도 하였다. 광고와 달리 『연안행』이 실제 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성격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 글은 광고에 나타난 ②와 ③, 그리고 『연안행』이 가지는 해방공간에서의 당대성을 염두에 두고 미완의 『연안행』을 다시 읽고자 한다. 『연안행』에서 김태준의 이동은 국민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선 동아시아의 언어, 앞과의 만남을 열어주었고, 문학이라는 근대지식의 근본적 조건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다. 이미 『연안행』에 나타난 김태준의 노정에 대한 재구가 이루어졌고, 에세이로서 『연안행』이 가지는 문예 미학적 성취에 대한 성과가 제출되었지만, 『연안행』을 재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글

은 『연안행』과 해방공간 김태준의 정치적 실천을 겹쳐 읽고, 또한 『연안행』에 기록된 그의 이동에 주목하여 당대 조선문학가동맹의 민족문학 개념에 내재하고 있는 동아시아라는 계기를 발견하며, 『연안행』에서 김태준이 수행한 문학의 위치에 대한 재고가 가지는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2. 인민전선과 민주주의: 해방전후 정치적 실천의 연속성

김태준은 1945년 8월 15일을 팔로군의 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맞은 것으로 전해진다. 9월 4일 연안을 출발한 김태준과 박진홍은 섬서성(陝西省)과 산서성(山西省)을 지나고 하북성(河北省)과 ‘만주’를 도보로 횡단하였다. 한반도에 들어온 그들은 소련 지배하의 평양에 들른 후, 11월 하순 경성에 도착하였다. 도착 이전에 이미 그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중앙인민위원 겸 문교부 대리, 재건된 조선공산당의 서기국원으로 선임된 상태였다. 경성에 도착한 후 그는 경성대학에 복귀하는 한편, 중일전쟁기 경성콤그룹 활동의 연속성 위에서 박헌영과 함께 정치적 실천을 수행하였다. 그는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을 중재하여 두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는 데 관여하였으며,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한 신탁통치가 막 알려진 무렵인 그해 말 박헌영을 수행하여 평양에 다녀오기도 하였다.⁸⁾

6) 김용직(2007), pp. 308-367.

7) 이해영(2006), 『청년 김학철과 그의 시대』, 역락. 이해영은 『연안행』의 연안체험 형상화는 ‘인민전선부 성원으로서의 이지적 의식세계’에 근거하고 있으며, 논리화의 양식적 특징을 가짐을 밝혔다.

8) 김윤식(2006),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 서울대출판부, pp. 117-121; 김용직(2007), pp. 377-398; 박병엽 구술(2010), pp. 28-37. 1945년 12월 28일부터 1947년 1월 1일까지였던 평양행에서 박헌영은 김일성과 신탁통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1946년 1월 김태준은 『조선 민족문화 건설의 노선』의 집필에 깊이 관여하면서, 앞으로 건설해야 할 문화는 계급문화가 아니라 민주주의 민족문화임을 강조하였다.⁹⁾ 종로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제1회 조선전국문학자대회’가 개최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1946년 2월 8-9일 오전 11시였다. 그 자리에서 김태준은 『문화유산의 정당한 계승 방법』을 주제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조선전국문학자대회는 조선문학가동맹을 승인하였으며, 김태준은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의 평론부 위원장에 선임된다.¹⁰⁾ 조선전국문학자대회는 “조선문학의 기본임무와[sic-가] 민족문학의 수립에 있”음을 확정하고, 일제 제국주의적 문화지배의 잔재와 봉건주의적 유물의 청산을 당면과제로 지적하였다. 그들은 민족문화 건설을 위하여는 민주주의적 국가건설이 선행해야 하며, 민주주의적 국가 건설을 위하여 조선이 세계민주주의 전선의 일익(一翼)을 감당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후진국의 국수주의적 경향은 이미 “민주주의연합국에 의하여 타도된 세계 「팻시즘」이 재생할 온상”임을 지적하면서 그것과 구별되는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을 요청하였다.¹¹⁾

임화 역시 제1회 조선문학자대회에서 『조선 민족문화 건설의 기본과제에 관한 일반 보고』를 하면서, 태평양전쟁 직전 조선의 문학자들 사이에 조선어, 예술성, 합리성을 전제한 “공동전선”이 존재하였음을 환기하였다. 그리고 그 전선은 제국주의와 파시즘에 맞선 것이었으며 “조선의 문학자들이 신문학 이래 처음으로 공동노선에서 협동했다는 사실”을 특기하였다.¹²⁾ 이러한 공동전선의 역사적 실체를 찾자면, 카프 문학자들과

9) 김재용(2005), 『김태준과 민족문화론』, 염무웅 외, 『해방 전후, 우리 문학의 길찾기』, 민음사, pp. 88-91; 신승엽(2007), 『김태준과 임화』, 『크리티카』 2, 사피엔스21, pp. 141-143.

10) 서기국(1946), 『조선문학가동맹운동사업개발보고』, 『문학』, 1946.7., p. 153.

11) 제1회조선전국문학자대회(1946), 『제1회조선전국문학자대회 결정서』, 『문학』, 1946.7., pp. 86-87.

12) 임화(2009), 『조선 민족문화 건설의 기본과제에 관한 일반보고』(『건설기의 조선문

구인회 문학자들이 서로 근접하여 공동의 문화적 실천을 보여주었던 중일전쟁기의 문단 재편을 떠올릴 수 있다. 이들의 실천은 파시즘에 맞선 좌우 지식인들의 연대였다는 점에서 서구의 반파시즘 인민전선을 떠올리게 하지만, 전향을 전제로 하고 전시기의 제한된 담론공간 안에서만 발화가 가능했으며 국민전선의 일각을 이루는 한에서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굴절된 ‘공동전선’을 형성하였다. 카프 출신의 사회주의 문학자들, 구인회 출신의 모더니스트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및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한 조선(어문)학 연구자들은 『조선일보』, 『인문평론』, 『문장』 등의 미디어의 지면을 공유하면서 근대성의 기율을 지키고자 하였다.¹³⁾ 식민지 아카데미즘에서 출발한 고전 연구자 김태준과 1930년대 초반까지 조선 연구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임화가 문화접변(acculturation)의 시각에서 조선문학사 및 조선문화사의 해석틀을 제안하고, 그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출판사 학예사(學藝社)를 경영하고 조선문학의 정체성을 물질화하여 옹호하는 ‘조선문고’를 기획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였다.¹⁴⁾ 그리고 파시즘에 대항하여 조선어, 예술성, 합리성, 문화, 지성, 전통, 진보 등 근대성의 가치를 옹호한 중일전쟁기의 문학자들은 해방공간 조선문학가동맹을 결성하였다.¹⁵⁾

하지만 임화가 “세계 ‘파시즘’의 발광에 끊임 줄 모르는 침략정책”과 태평양전쟁으로 인해 그러한 공동 전선이 지속되지 못하였다고 회고한 것처럼, 중일전쟁기 조선문학자 공동의 실천은 1940년 8월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의 폐간에서 가시화된 공론장의 폐쇄와 더불어 점차 그 음

학』, 백양당, 1946), 『임화문학예술전집 5-비평2』, 소명출판, p. 423.

13) 洪宗郁(2011), 『戰時期朝鮮の轉向者たち』, 有志舎, pp. 233-236.

14) 김태준(1937), 「문학의 조선적 전통」(下), 『조선문학』, 1937.7.; 임화(1937), 「복고 현상의 재흥」(三), 『동아일보』, 1937.7.

15) 물론 중일전쟁기와 해방공간의 문학사적 단속성은 문학자의 네트워크와 재등장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며, 미학적 기획과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논증되어야 할 과제이다. 주목할 만한 최근의 시론적 성과로는 손유경(2016), 『슬픈 사회주의자』, 소명출판, pp. 34-40, pp. 177-239 참조.

직임의 폭이 좁아진다. 식민지 아카데미의 연구자와 식민지 미디어의 비평가로 활동하던 김태준이 경성콤그룹의 조직원으로 지하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그 즈음인 1940년 5월경이었으며, 1940년 8월 그는 박헌영을 만나게 된다. 이후 9월에서 11월까지 월 1회 정도 박헌영은 김태준의 방에서 숙식하며 기관지 『코뮤니스트』를 편집하였다. 그리고 1940년 10월에는 신명균의 요청으로 그가 박헌영을 대면하도록 주선하기도 하였다.¹⁶⁾ 하지만 이후 김태준은 1941년 1월 9일 이관술, 김삼룡, 이현상 등과 전후하여 검거되었으며, 그가 병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태평양전쟁이 한창인 1943년이였다. 「연안행」의 초두에서 그 역시 태평양전쟁을 독일과 일본이라는 “파시스트”들과 “세계에 최강의 두 민주주의 국가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파시즘 전선 사이의 전쟁으로 규정하였다.

김태준은 자신이 석방되었을 무렵 조선의 지식인들의 움직임을 두 부류로 기록하였다. 한편에는 파시즘 세력인 일본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들이 있었으며, 또 다른 편에는 “탁류를 향하여 조선의 인민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일군”이 있었다. 이러한 이분법의 구도는 태평양 전쟁기의 역사적 현실이기도 하였으나, 김태준이 해방공간 당대의 정치적 지형과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재현한 것이기도 하였다. 김태준은 당시 대일협력에 적극적이었던 지식인들을 두고, “오늘날 한민당, 혹은 이승만씨에게 옛날 왜놈에게 섬기는 수법으로 가장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장모 같은 놈도 서슬이 풀으게 왜놈의 전쟁을 위하여 진력하고 있었고 여

16) 경성총로경찰서(1941), 「피의자 심문조서 김태준(1), (3)」, 1941.12.14.-26.; 경성지방법원(1942), 「경성지방법원 김태준 관계 피고인 신문조서」, 1942.9.16. (김용직(2007), 『김태준 평전』, 일지사, p. 297 및 pp. 369-371에서 재인용) 이예숙은 박헌영과 신명균의 회견을 두고 “신명균은 조선어학회와 같은 민족문화단체 혹은 민족주의자 그룹을 대표해서 경성콤그룹의 지도자인 박헌영과 회견하고 반제 반파시즘 공동투쟁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경성콤그룹과 민족주의자 그룹이 당면한 공동 목표 아래 정치적 협정을 맺고 공동전선(행동통일로부터 시작하는)을 취하는 것은 상층 통일전선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예숙(2004), 「일제 말기 반파시즘 인민전선론」, 『한국사연구』 126, 한국사연구회, p. 228.

남은 모리배 박홍식 김성수의 무리야 책할 것이 있으랴!”라고 비판하였다.¹⁷⁾ 그는 1945-1946년 당시 이승만과 한민당을 지지하는 이들의 움직임을 태평양전쟁기 대일 협력자들의 실천과 겹쳐 읽고 있었다. 1945년 10월 29일 박헌영과 이승만의 회담에서 이들은 ‘친일파’의 숙청 문제로 이견을 확인하였고, 이후 이승만과 조선공산당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었던 상황이 이러한 비판의 배경이었을 것이다.¹⁸⁾

또한 김태준은 그 반대편에서 “몇 개의 운동자 그룹이 횡적연계를 갖고 싸우고 있었”던 것을 적고는, 자신도 ‘일경(日警)’의 감시를 피해 지하에서 움직였던 활동가들과 접촉하였음을 밝혔다. 이때 그는 이관술이나 이현상 등 경성콤그룹 멤버, 함흥 및 원산을 중심으로 한 적색태로동지(赤色太勞同志), 이승엽이나 김일수 등 공산주의협의회 등의 활동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여운형, 김일성, 무정 등과의 ‘횡적 연계’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그는 “K동呂선생은 현준혁, 최K, 이K, 李T, 김T 등을 찾코 조선해방연맹이거나 조선인민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의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여운형 계열의 조직에서 발행하였던 기관지에 징용, 징병, 공출, 배급에 저항하는 ‘선언문’을 기고했음을 적었다. 1946년 당시 북에 있었던 김일성과 무정은 해외에서의 투쟁이라는 맥락에서 『연안행』에 등장하였다.

17) 인용문에 나오는 ‘장모’는 장택상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1945년 10월 미군정 하 경찰청에 채용되었으며, 대일협력의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을 대거 채용하였다. 또한 1946년 5월 정관사 위조지폐사건을 지휘하였다. 다만 1940년 이후 그가 창씨개명을 거절하고 고향에 칩거했다는 사실은 김태준의 진술과 위배된다. 김태준이 언급한 ‘장모’가 장택상이라면, 해방공간의 입장을 강하게 투사한 것이 된다. 후에 유진오는 김성수의 대일협력을 다소 방어적이며 우호적으로 이해하려 하였지만, 김태준은 해방공간에서 김성수가 한민당을 창당한 것을 감안하며 그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유진오(1977), 『양호기』, 고려대학교출판부, pp. 90-110.

18) 임경석(2003), pp. 228-229; p. 253.

군사문제토론회는 나에게 중국공산당의 수도 「연안」에 가서 김일성, 무정 동지들과 함께 국내에 대한 군사대책을 세워보라고 하였다. 남만(南滿)과 서북선(西北鮮)에는 산악지대가 많으니 이것을 이동근거지로 하고 북선(北鮮) 농민의 각성되어 있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야 유격전을 전개하면 할 수 있으리라는 것, 조선인민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충실히 싸울 수 있는 인민의 입장에 있는 전투적, 진보적인 정예분자들의 정당한 지도 밑에 민중이 결집된 힘을 갖고 적 일제(日帝)를 격퇴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조선민족의 완전해방은 오직 우리 민족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조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나는 고국을 떠나서 연안 가기로 결의하였다. (①:188)

실제로 1940년 이후 김일성은 소련으로 피신하였기 때문에, 당시 김태준에게 알려진 정보는 잘못된 것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연안을 무정과 김일성이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그곳을 토대로 ‘만주’와 서북조선을 근거지로, 유격전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상상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는 ‘최고지도자’ 박헌영 역시 연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적었다.

지하로 숨어다니는 수많은 동무들이 이구동성으로 불르고 찾는 것은 박동무였다. 누구보담 이론이 우수하고 직실(直實)하고 완전히 자기희생적이고 투쟁 연대(年代)가 가장 길고 조선해방운동의 풍부한 경험을 집대성한 분은 박동무였기 때문에 조선민족의 해방운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박동무를 최고지도자로 모시는대는 의의가 없는 것이었다. (….) 지하운동 지방에서 우차(牛車)를 끌고 다니는 동지, 심산(深山)에 가서 화전민이 된 동지, 공장에 가서 직공된 동지, 보(褌)집장사로 가장한 동지들이 서로 조직적 연락을 갖고 조선의 근로대중을 위하여 민족해방을 위하여 싸우고 있었는데 이들의 최고지도자인 박헌영 동무의 거처가 아득하기 때문에 서로 찾고 있었다. 해삼위(海蔘威)로 갔으리라고 전하는 이도 있고 혹은

연안으로 갔으리라 전하는 이도 있었는데 박헌영 동무가 815 이전의 18지옥에 빠진 조선의 인민과 민족을 등지고 해외로 도망할 분도 아니였고, 그 후에 알고 보니 전라도 광주 어느 벽돌 공장에서 김성삼(金成三)이라고 변명(變名)하고 벽돌을 굽고 있으면서 일제와 싸우고 있었다. 나도 행여나 연안에 박헌영 동지가 가지 않았을가고 생각해보았다. (①:189-190)

김태준은 태평양전쟁기 지하에서 반파시즘 투쟁을 하던 ‘동지’들도 박헌영을 찾고 있었음을 증언하는 동시에, ‘선’이 닿지 않던 박헌영이 자신들의 추측과 달리 ‘조선의 인민과 민족을 등지고 해외로 도망’하지 않았으며 지하에서 투쟁하고 있었음을 대비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김태준은 자신이 연안에 갔던 이유를 신원하는 동시에, 박헌영이 끝까지 조선을 버리지 않은 실천가이자 ‘최고지도자’였음을 강하게 재현하였다.¹⁹⁾

『연안행』에서 재현한 1943-1944년 태평양전쟁 당시의 반파시즘 전선은 1946년 당대의 정치적 지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가령 김태준은 해방 직후 여운형에 대해 그다지 후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으며,²⁰⁾ 당시 박헌영과 여운형의 관계도 매끄럽지는 못하였다.²¹⁾

19) 박헌영을 ‘최고지도자’로 이해하는 것은 경성콤그룹 출신에 조선공산당에 소속된 김태준으로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구영은 연안에서 돌아온 직후, 김태준이 마오쩌둥과 박헌영을 높이 평가하였음을 적고 있다. “이처럼 앞서의 말(여운형과 김일성을 낮게 평가한 것-인용자)을 취소하자, 누군가가 앞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그(김태준-인용자)는 마오쩌둥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박헌영 선생밖에는 없지요.’”, 이구영(2001), 『역사는 남북을 묻지 않는다』, 개마고원, p. 134.

20) 1945년 12월 초 연안에서 돌아온 김태준은 자신의 환영 자리에서 “여운형, 김일성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하고 신문에서도 떠들어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다른 말을 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이야기는 절대로 적지 말라고 하고는 말을 시작했는데, 말이 끝날 무렵 그는 양해를 구하면서 앞서의 발언을 취소했다. ‘여러분, 내가 아까 한 이야기는 취소합니다. 왜냐하면 여운형 씨로 말하면 현 시국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물

또한 여운형의 건국동맹은 경성콤그룹, 공산주의자 협의회, ‘자유와 독립 그룹’과 같은 공산주의자의 조직이 아니라, 일체의 반일역량의 규합을 의도하는 통일전선적 조직에 가까웠다.²²⁾ 그러나 박헌영과 여운형이 1946년 2월에 결성된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공동의장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김태준은 여운형이 활동하였던 ‘건국동맹’의 존재를 기술했고,²³⁾ 자신 또한 그들과 전시기부터 접촉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탈출에 성공한 후인 「연안행」 3회에서는 ‘만주’ 출신의 팔로군이 김일성을 잘 안다고 대답하면서 “만주서 조선동지들과 유격전하든 이야기주머니”를 풀어 놓는 장면을 삽입하기도 하였다(③:99). 그는 최고지도자로서 박헌영을 둔 채, 여운형, 김일성, 무정 등 해방공간 당대에 공동의 전선을 기획할 수 있는 이들을 「연안행」의 해방 이전 정세 서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전시기와 해방공간을 공히 ‘파시즘’과 ‘민주주의’의 투쟁으로 이해한 김태준의 정세인식과도 관련이 있었다. 박헌영과 김태준을 비롯한 경성콤그룹 출신의 실천가들은 태평양전쟁을 ‘파시즘’과 ‘민

인데 아까 내가 망령되어 농담 겸 했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김일성 장군으로 말하면 소련에서 이북으로 나와 지금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내가 경솔하게 말했으니 전부 없었던 걸로 해주십시오.”, 이구영(2001), pp. 133-134.

- 21)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결성과 그 안에서 박헌영과 여운형의 갈등에 관해서는, 서중석(1991),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pp. 345-354.
- 22) 임경석(1991), 「국내 공산주의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전술(1937~45년)」, 한국역사연구회 1930년대 연구반,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길사, p. 226.
- 23) 김태준의 글에 나오는 ‘조선해방연맹’은 ‘건국동맹’의 오기로 볼 수 있다. 조선어학회 회원이자 교사였던 이만규는 1930년대 중반 이후 여운형이 ‘소극적 투쟁과 적극적 준비’를 하였음을 증언하면서, 그러한 실천의 정점에 ‘민족전선’으로서 “비밀결사 건국동맹”을 위치시켰다(이만규(1946), 『여운형선생투쟁사』, 민주문화사, pp. 168-169). 1944년 8월 10일에 결성된 건국동맹이 “전시치하인데도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조직면으로도 활동면으로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고, 무엇보다도 건국준비위원회의 모체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볼 수 있듯(서중석(1991), p. 110), 해방직전 전시체제가 활동의 복원은 해방공간 당대의 정치적 실천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만규 또한 1944년 건국동맹의 조직원으로부터 이후 1947년 근로인민당 상임위원에 이르기까지 여운형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한 인물이었다.

주주의’의 투쟁으로 이해하였을 뿐 아니라, 당대의 정세 또한 ‘파시즘’과 ‘민주주의’의 전선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1946년 5월에서 8월까지의 제2차세계대전 종전 1주년을 기념하여 많은 행사가 있었다.²⁴⁾ 전시기의 ‘공동전선’은 국민전선의 일각을 이루는 한에서 ‘허용’된 인민전선이자, 식민지라는 조건으로 인해 운동과 사상이 결합하지 못한 것이었다.²⁵⁾ 식민지의 전선이 굴절된 ‘공동전선’이었다면, 해방공간에서의 전선은 운동과 사상의 결합이 가능한 조건 속에서 기투된 것이었다. 1944년의 탈출을 기록한 『연안행』은 해방전후의 연속성을 강하게 의식하며, 좌절하고 실패하였던 전시기의 실천과 기억을 통해 “과거 속에서 희망의 불꽃을 점화 (setting alight the sparks of hope in the past)”하고자 한 글쓰기였다.²⁶⁾

3. 조선어문(학)의 인봉(印封)과 동아시아 언어라는 실천: 해방전후 언어 경험의 불연속성

‘조선어’, ‘합리성’, ‘예술성’을 옹호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 지식인들과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연합하였던 굴절된 ‘공동전선’으로 기능하였던 『인문평론』이 위기에 처하는 것은 1940년을 넘어서면서였다. 이 위기는 구체적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민간신문으로 대표되는 담론공간의 폐쇄와 조선(어)학이라는 지식의 위기로 나타났다. 다

24) 1946년 초 박헌영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크리미아 선언’ 1주기 (1946.2.14.)를 기념하기도 하였고, 5월에는 독일 항복 1주기를 기해 반파쇼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946.5.8.-10.) 8월에는 조공 중앙위는 소일개전 1주년을 기념하였고(1946.8.9.), 제2차대전 연합국의 지도이념으로서 스탈린 루즈벨트 노선의 중요성을 말하였다(1946.8.15.-18.). 임경석(2003), p. 286, p. 331, pp. 361-362.

25) 洪宗郁(2011), pp. 234-235.

26) Walter Benjamin (1940), “On the Concept of History”, <https://www.marxists.org/reference/archive/benjamin/1940/history.htm> (검색: 2016.4.29.).

산 정약용 서거 100년인 1935년을 기점으로 1930년대 중후반 좌우의 지식인이 하나의 장에서 동의와 비판을 주고받으며 그 성과를 담론과 물질 양 측면에서 축적하였던 조선 연구가 위축된 것도 이 시기였다.²⁷⁾ 또한 중일전쟁기 전쟁 특수와 광산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팽창했던 출판 시장 역시 급속히 축소되었다.

이러한 정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는 1930년대 중반 김태준과 함께 ‘중앙인서관’에서 『조선문학전집』을 편집하고 간행하였던 조선어학자 신명균이었다. 두 신문이 폐간된 이후, 박헌영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신명균이 스스로 목숨을 거둔 것은 1940년 11월 20일이었다. 그리고 한설야가 그를 애도한 소설 『두견』을 발표한 지면은 『인문평론』의 폐간호인 이듬해 4월호였다.²⁸⁾ 『문장』 역시 같은 달에 폐간되었고, 그해 11월 『국민문학(國民文學)』이 창간되었다. 그리고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고, 3·1 운동 민족대표 33인과 같은 수의 조선어학회 회원이 검거되었다.

해방공간에서 임화는 이 시기의 ‘국민문학’을 평가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로 만드는 운동의 일익으로서의 국민문학”이라고 비판하였으며, 태평양전쟁기에는 “문학 위에도 철추(鐵鎚)가 내려 조선어 사용의 금지, 내용의 일본화에 의해서만 조선인의 문학생활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회고하였다.²⁹⁾ 이에 호응하듯, 1946년 2월 제1회 조선전국문학자대회에서 문학자들이 결의하여 ‘동맹지도기관’에 일임한 사항 중 하나도 “국어의 재건과 정당한 발전”이었다.³⁰⁾ 김태준은 자신이 경험하였던 태평양전쟁기 ‘국민문학’의 상황과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27) 1930년대 중반 백남운에게 ‘조선연구’는 민족통일전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홍종욱(2011),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그늘, 지식인의 전향』, 『사이間SAI』 11,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pp. 99-102.

28) 신명균, 한설야, 엄홍섭이 중심이 된 중앙인서관을 매개로 한 ‘인민전선’의 실체와 실천에 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김윤진(2016), 『해방기 엄홍섭의 언어의식과 공동체의 구상』,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학회, 1장 참조.

29) 임화(2009), p. 424.

30) 제1회조선전국문학자대회(1946), p. 87.

조선을 군사기지로 하고 대륙 침략에 쓰는 무기를 대부분 여기서 만들고 80만의 이민단(移民團) 즉 재향군인단(在鄉軍人團)을 가져오고 몇 개의 사단(師團)을 두고 갖은 압박과 약탈을 하였다. 특히 문화적 압박은 언어 도단이었다. 조선어의 조선사, 조선성명, 조선 의식(儀式) 습속의 사용까지 금지하고 조선 「신」(神)의 신앙까지 금지하고 모든 것을 순전히 일본색으로 강요하였다. (...) 언어는 왜어 소위 국어보급운동(國語普及運動)이요 역사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이요 정치는 징용징병이요 경제는 공출과 배급이요 왜노(倭奴)의 태평양전쟁에 박자(拍子)를 치며 날뛰며 성원(聲援)하는 주출백귀(晝出百鬼)의 창피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다. (①:187-188)

김태준 또한 일본 제국주의의 통제와 동원이 극심하였음을 지적하는 첫 사례로 ‘조선어’의 금지와 ‘국어보급운동’을 들었다. 김태준과 임화를 비롯하여, 해방 직후 민족문학론을 주장한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학자들은 태평양전쟁기를 조선어가 금지 당한 시기로 재현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언어와 민족의 친연성에 근거한 어문민족주의의 인식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조선어와 조선학을 매개로 좌우의 문학자들이 일종의 ‘통일전선’을 형성하였던 1930년대 조선 연구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것이기도 하였다.

문학연구니 역사연구니 언어연구니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의 일이니 당분간 이 방면의 서적은 상자에 넣어서 봉해두자. 보는 책은 경제학 ABC, 인터내쇼날, 전기(戰旗), 레닌선집 등이였다. 나는 좀 더 튼튼한 세계관을 수립하려고 모색하였다. 외계에는 공출, 배급, 징용, 징병에 떨며 울고 있는 수 천만 형제자매의 아우성소리 조음(燥音)이 이타(耳朶)를 치는데, 어느 겨를에 조선문학이니 조선역사니 찾고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고 하였다. (①:189)

김태준이 조선어, 조선문학, 조선역사 연구를 중단한 것이 두 가지 계기와 관련되었음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총독부의 조선어에 대한 억압

도 주요한 이유였겠지만, 김태준은 조선어문학(연구)과 조선사(연구)가 당대 고통을 받는 ‘형제자매의 아우성소리’와 거리를 둔 한편, 그들을 소외시켰음도 아울러 반성하고 있다. 이후 ‘연안행’에서 김태준의 실천은 이 두 가지 반성에 기반하고 있다.

김윤식은 조선어를 ‘국어’로 인식한다면 조선어학회가 국어를 관장하는 국가의 대행 기구였기 때문에, 문학사적 의미에서 ‘일제강점기’를 1942년 10월에서 1945년 8월 15일까지로 이해할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조선어학회 사건 이후 조선문학에 억압과 함께 열린 가능성 중 하나는 이중어 글쓰기(bilingual writing)였다. 이중어 글쓰기는 국민국가의 문학, 곧 조선문학도 일본문학도 아닌, ‘문학 자체’로 나아갈 계기를 내포하고 있었다.³¹⁾ 조선어 및 조선학과 관련된 서적을 서랍 속에 넣은 김태준에게 역시, 이전과 전혀 다른 언어의 공간이 열리게 되었다.

연안을 향한 여정에 따라 김태준과 박진홍이 마주하는 언어의 조건과 환경은 여러 차례 변화하였다. 특히 두 사람이 수행한 조선 ‘탈출’의 궤적은 서로 다른 위상과 조건 속에 있던 동아시아의 다양한 언어를 횡단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첫 단계는 석방 후 조선에 머무르던 시기로, 이때 그는 식민권력이 조선어를 금지한 당대적 맥락 속에서 조선어로 된 서적과 그 독서를 유보하는 대신, 일본어로 번역 출간된 사회주의 서적을 읽었다. 앞서 언급된 『공산주의ABC』, 『레닌전집』 등이 그것이었다.³²⁾ 1930년대 중반 사회주의 지향의 조선연구자들이 대부분 일본어 사회주의 서적으로부터 독서를 시작하여 조선문화 및 조선역사 서적으

31) 김윤식(2003),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이중어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p. 66.

32) 일본에서 『共産主義ABC』가 처음 번역된 것은 1925년이였다. エヌ・ブハリン, エー・プレオブラシェンスキー(1925), 司法大臣官房秘書課 譯, 『共産主義ABC』, 司法大臣官房秘書課. 이후 1930년에 다시 간행되었다. ブハーリン, プレオブラチエンスキー(1930), 田尻静一 譯, 『共産主義のABC』, 政治研究社. 일본에서 『레닌전집』이 번역된 것은 1929-1930년 白揚社에서였다. ‘레닌全集’이라는 표제 하에 간행되었지만, 전질완간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로 그 방향을 옮겨간 것을 염두에 둔다면,³³⁾ 1943년 김태준은 그 역방향의 독서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것은 전통과 조선학이라는 축을 매개로 국민전선 안에서 인민전선을 기획하였던 문학자가 다시금, 국제주의적인 범위로 그 인식과 실천의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그의 언어는 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어선 장소에 존재하게 된다.

두 번째로 조선을 탈출하여 중국에 도달한 김태준과 박진홍은 팔로군 지역에 들어가기까지 “일본인 점령구”를 지나게 된다. 이들은 일본인 군인 및 관료와 중국의 인민들을 만나게 된다. 김태준과 박진홍은 일본어는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지만, 중국어는 여러 점에서 서툴렀다. 결국 그들은 일본 옷으로 입고 일본군을 “유창한 왜어로 구령이 담넘어가듯 속여넘겼”으며(②:186), 서툰 중국어로는 부분 부분 진실을 말하였다. 이러한 언어 사용은 김태준의 어학실력에 관한 통념과 반대이다.³⁴⁾ 그의 어학 실력에 변동이 있다기 보다는, 권력자와 통제자, 그리고 군인의 언어인 일본어에는 ‘거짓’의 역할을 부여하고, 압박받는 민중이자 연대가 능한 인민의 언어인 중국어에는 ‘참’의 역할을 부여한 김태준의 의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팔로군 지역에 도달한 두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했는데, 이때 김태준이 자신의 뜻을 제시하고 소통하였던 방법은 말이라는 음성 언어가 아니라 글이라는 서기 언어였다. 이것은 김태준 스스로도 “언언개절(言言凱切)한 우국개세(憂國慨世)의 문자(文字)”라고 고평

33) 김태준은 예외였다. 그는 조선연구에서 시작하였으며, 귀모뒤을 경유하여 사회주의로 인식론적 전환을 수행하였다. 이용범(2014), 『김태준과 귀모뒤』, 『민족문학사학 연구』 56, 민족문학사학회.

34)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반 김태준의 어학실력에 관해서는, 일본어는 능숙하지 못하였고 대신 중국어가 능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용범(2015), 『김태준 초기 이력의 재구성과 ‘조선학’의 새로운 맥락들』, 『민족문학사학 연구』 59, 민족문학사학회, p. 350. 김태준은 1920년대 말 두 번의 북경행 경험이 있으며, 그때 웨이젠공(魏建功), 장샤오위안(江召原), 저우취린(周作人) 등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다.

하였던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이 “포의(布衣) 왕민호(王民俾)들과 담론(談論)”하던 방식인 필담(筆談)이었다.³⁵⁾ 그는 중국 지역에서 자신이 “언어가 능숙치 못하고 지방풍습이 서로 달”은 상황 앞에서 “만년필로 조그만 조희조각에 편지를 썼”다(②:191). 그가 “노(老) 동지에게 서투른 글로써 뵈기를 청”하자, 중국의 노인은 “국제적 우의(友宜)”로 그들을 환대하였으며, 환대 속에서 본격적인 ‘심사’는 한문으로 진행되었다.

정치공작원 장중웨이(張中水)는 나에게 몇 가지 시문(試問)을 하였다.

- 1 귀국인민의 생활정형
- 2 귀하가 귀국에 있을 때 무었하였나
- 3 왜 여기 오게 되었나
- 4 압록강, 산해관, 넘어올 때 또는 당현(唐縣) 이가장(李家莊) 찾아오든 경로는 여하(如何).
- 5 이번 전쟁의 성격은? 중국이 이길까 일본이 이길까?

나는 자세하게 한문(漢文)으로써 길다란 논문을 썼다. 전쟁은 제2차대전 — 민주주의국가와 반민주파쇼 국가와의 전쟁 — 인 것이고, 마오쩌둥(毛澤東) 동지의 「논항일전(論抗日戰)」에서와 같이 세 단계를 지나서 중국이 이긴다고 단정하였다.

「조선동무들도 「논항일전」을 읽는가」

「조선서도 몇 해 전에 잡지 개조(改造)에 그 논문이 역재(譯載)된 것을 보았다」

장중웨이의 심문태도는 내가 그를 심문하는지 그가 나를 심문하는지 물을 만큼 순종하고 친절하고 평민적이다. 거만한 관찰적 태도는 티끌만큼도 발견할 수 없었다. (②:192-193)

1926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한 김태준은 예과 조선인 학생모임인 ‘문우회’의 회지로 일본어로 된 글은 실리지 않는 『문우(文友)』와, 예

35) 김태준(1939), 『증보 조선소설사』, 학예사, pp. 168-169.

과 학우회 문예부의 회지로 조선어로 된 글은 실리지 않는 『청량(淸涼)』에 한시와 한문 산문을 기고하였다. 또한 그는 예과 철학 강사 다카다 신지(高田眞治)가 도쿄제대 조교수로 임명되어 서양유학을 떠나게 되자, 그와 화운시(和韻詩)를 주고 받기도 하였다.³⁶⁾ 그리고 1944년 김태준은 팔로군 앞에서 한문으로 2차 대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민주주의 국가와 파시즘 국가 사이의 전쟁으로 파악한 것은, 일찍이 1941년 6월 전세계 공산주의자의 당면 과제를 각국 인민들이 국제통일전선을 조직하여 파쇼에 반대하여 싸워 모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것으로 규정한 마오쩌둥의 지시문,³⁷⁾ 그리고 그보다 앞서 1940년 중국혁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두 개의 행보로 나누고, 첫째 행보를 민주주의혁명으로 그 다음 행보를 사회주의혁명으로 이룩한 신민주주의론과 공명하는 것이었다.³⁸⁾

또한 김태준은 1938년 5월에 발표된 「論持久戰」의 세 단계 즉, ‘제1단계 : 적의 전략적 공격, 우리의 전략적 방어 시기 → 제2단계 : 적의 전략적 수비, 우리의 반격 준비 시기 → 제3단계 : 우리의 전략적 반격, 적의 전략적 퇴각 시기’에 근거하여,³⁹⁾ 1944년 당시 ‘전쟁’의 정세를 전망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마오쩌둥의 「論持久戰」을 접한 경로가 제국 일본의 잡지 『개조(改造)』를 경유해서였다는 사실이다.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기에 논의된 ‘동아협동체론’은 전시의 노동운동·농민운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의 지지 위에서, 저항하는

36) 이용범(2015), pp. 346-369.

37) 모택동(2007), 김승일 역, 「반파쇼국제통일전선에 대해」(1941.6.23.), 『모택동 선집』 3, 범우사, p. 31.

38) 모택동(2002), 김승일 역, 「신민주주의론」(1940.1.), 『모택동 선집』 2, 범우사, p. 375.

39) 모택동(2002), 김승일 역, 「지구전을 논함」(1938.5.), p. 151. 당대 「지구전을 논함」의 맥락에 대해서는 김계일 편역(1987), 『중국민족해방운동과 통일전선의 역사』 2, 사계절, pp. 30-36.

중국에 대응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자기비판과 사회주의적인 동아시아 형성을 지향한 ‘전시변혁’의 가능성을 열었다. ‘동아협동체’론은 사회를 재조직함으로써 식민지/제국주의의 분쟁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사회 연대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획이었는데, 민족해방과 사회해방을 실현하고 다민족이 자주·협동하는 ‘사회적’ 광역권 이념으로서 의사혁명적 성격이 있었다. 따라서 전체주의와 친근성을 지니며 국가사회주의적인 ‘협동체’ 국가의 연합을 주창한 세력으로부터 맑스주의적인 제국주의 비판과 친근성을 지닌 좌파 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동아협동체론에 주목하였다. 이때 동아협동체론은 『중앙공론(中央公論)』과 『개조』를 주요한 발표지면으로 삼았는데, 이들 잡지는 일본의 의견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시각도 제시하도록 섬세히 편집하였다.⁴⁰⁾

쇼와연구회(昭和硏究會)의 구성원 로야마 마사마치(巖山政道)의 논설로 제국주의정책을 수정·변혁하여 식민지의 개발·발전을 도모할 것을 주장하며 동아협동체론의 도화선이 된 「東亞協同體の理論」(1938.11.)은 『개조』에 실렸는데, 이 논설을 전후하여 에드가 스노우의 「中國共產黨領袖 毛澤東會見記 - 中國共產黨의對日政策」(1937.7.), 마오쩌둥의 「持久戰を論ず」(1938.10.), 「抗日遊擊戰論」(1938.11.) 등도 같은 지면에 게재되었다.⁴¹⁾ 1938년 5월 마오쩌둥이 전시기 중국 해방구에서 중국어로 발표한 문건은 같은 해 10월 제국 일본의 수도에서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간행되었으며, 비슷한 시기 김태준은 식민지 조선의 경성에서 『개조』에 실려 일본어로 번역된 「持久戰を論ず」를 읽었다.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내부’에 있던 독자들은 동아협동체론과 마오쩌둥의 실천을 ‘하나의 논의의 장’으로 이해하였으며, 그것에 근거하여 ‘외부’를 상상하고

40) 요네타니 마사후미(2010), 조은미 역, 『아시아/일본』, 그린비, pp. 164-181; 橫渠書院(2015), 「『論持久戰』在日本的傳播和巨大影向」, <http://www.coowx.com/p/gfzfd.html> (검색: 2016.4.29.)에 실린 요네타니 마사후미(米谷匡史)의 발언 참조.

41) 小林英三郎 他 編(1977), 『雜誌『改造』の四十年』, 光和堂, p. 473, pp. 495-496. 「持久戰を論ず」는 『改造』 1938년 10월호의 pp. 394-413에 실렸으며, 축역의 가능성이 있다.

동아협동체론의 ‘내부’에서 정치적, 문화적 실천을 수행하였다.⁴²⁾ 그리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44년, 태평양전쟁의 한 가운데서 김태준은 중국 해방구의 초입에서 좌절된 동아협동체론의 지적 유산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는 동아시아의 전통 서기언어인 한문으로 마오쩌둥의 논설을 다시 썼다. 마오쩌둥의 논설은 지리적으로는 ‘중국 → 일본 → 조선 → 중국’의 경로로 이동하였으며, 언어로는 ‘중국어 → 일본어 → 한문’의 경로를 횡단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선인 김태준은 논설에 대한 독자이자 그것을 다시 쓰는 비평가의 위치에 있지만, 정작 그의 모어인 조선어는 지식과 언어의 연쇄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 동아시아의 사상 연쇄에서 조선의 위치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은, 조선의 식민지성과 조선 지식인의 말하기/쓰기가 위치한 곤경을 드러내는 명징한 사례이다.⁴³⁾

네 번째 단계는 팔로군과 함께 ‘종군’하던 시기의 언어 상황이다. 김태준과 박진홍을 비롯한 조선의용군은 팔로군으로부터 “뜨거운 국제적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다. 팔로군은 조선의용군이 후일 “조선에 돌아가서 중대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니 스사로 몸을 아꼈고 공부만하라, 전투가 있을 때엔 잘 피신해서 희생이 없게 하고 확실히 정세가 유리할 때엔 참가해서 전투의 견학을 해도 좋다.”(③:107)라고 제안하였다. 팔로군의 국제주의적 연대 아래서, 김태준과 박진홍은 ‘궤이즈(鬼子)’, ‘부파(不怕)’ 등 비로소 일상적인 중국어로 중국인들과 소통하고 연대하였으며, 그리고 팔로군이 중국어 도서 “스타린(斯大林) 전집, 모택동전집을 열독”(③:99)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국제주의적 연대 아래서, 애초에 통/번역 불가능성을 염두에 둔 언어적 실천이 몇 번 등장한다는 점이다.

42) 홍종욱 외(2012), 『역사문제연구소 제41회 토론회당 - 전시기 조선 지식인의 전향』, 『역사문제연구소』 28, 역사문제연구소, pp. 372-373.

43) 근대 이후 일본에서, 혹은 중국에서 발신한 (동)아시아론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이다. (동)아시아론에서 식민지 조선 혹은 한국의 경험이나 위치는 누락되어 있었다. 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윤대석(2015), 『가라시마 다케시(幸島驍)의 중국 현대문학 연구와 조선』, 『구보학보』 13, 구보학회 참조.

학생들은 이국의 진객(珍客)을 위해서 중국의 고무(古舞) 유희(遊戲) 등을 출연하고 최후에 장중웨이[張中水]가 나더러 조선말로 조선사정(朝鮮事情)을 보고해 달라는 것이다.

나는 간단하게 조선사정 — 왜놈이 어떻게 조선을 압박하고 있는가 — 에 대해서 말했다. 그야말로 소귀에 경읽기 같으나 영문 물은 중국사람들은 이 진객의 입놀리는 것을 이상스럽게 보고 껄스대소(大笑)하였다. 장중웨이는 나의 승낙을 맡은 후 전날 밤에 심사 때에 써준 『조선사정』 일문(一文)을 풀어 서 설명해주시니 청중들은 광희(狂喜)하였다.

농민들은 최후에 우리들의 노래를 요청하니 P가 적기가, 애국가를 불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오고 달토록

수천년의 오랜 역사 골육에 흠은다 (②:194-195)

해방구에서 김태준과 박진홍을 맞아준 중국인들은 그들에게 ‘조선말’로 ‘조선사정’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김태준의 조선어 보고는 중국인들로서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었고, 뜻 없는 음성으로만 전달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하였다. 통역을 통해 최소한의 의미 전달을 제외한다면, 김태준의 조선어 수행은 음성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언어였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인의 요청으로 노래를 불렀다. 박진홍이 부른 「적기가」는 독일 민요가 아일랜드 노동당의 당가를 거쳐, 1930년대 동아시아에 전래된 노래였다. 만약 그가 이 노래를 불렀다면 팔로군은 익숙한 음률과 번역 불가능한 가사를 함께 들었을 것이다. 또한 박진홍이 올드랭사인(Auld Lang Syne)에 맞추어 불렀을 「애국가」 역시 같은 효과를 나타냈을 것이다. 이후 팔로군의 이동에 조선의용군이 함께 움직이는 형식을 취하게 됨으로써, 김태준과 박진홍은 비로소 조선어로 대화할 조선인들을 만나게 되며, 조선어로 쓰인 벽보를 발견하게 된다.

1944년 11월에 출발한 김태준의 ‘연안행’은 동아시아의 여러 언어를 횡단하는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발한지 2년이 지난 후에 그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김태준이 마주한 태평양전쟁기 담론공간에서 조선어는 괄호 안에 있었다. 김태준은 조선 안에서 공동전선의 토대였던 조선어로부터 거리를 두고, 일본어로 간행된 사회주의 지식에 의지하고 있었다. 조선을 탈출하면서 김태준과 박진홍은 일본어와 중국어가 병존하는 지역을 통과하는데, 이때 그들은 거짓과 기만의 언어로서 일본어와 진실과 연대의 언어로서 중국어라는 대립적이고 이분법적인 언어 수행을 보여주었다. 후에 중국어 지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는 한문이라는 중세 동아시아의 공동어문을 활용하기도 하나, 이때 한문은 이미 현대 중국어가 일본어라는 매개를 통과하여, 조선인의 손에서 다시 한문으로 옮겨진 중역(重譯)을 거듭한 것이었다. 이후 팔로군에 합류하면서 김태준과 박진홍은 다시금 조선어를 회복하지만 그것은 중국어라는 다수언어 안에서 병존하는 언어로서 조선어였다. 이때 회복한 조선어는 번역불가능성을 전제로 한 소리로서만 존재하거나, 익숙한 음률에 실린 낯선 음성으로서의 조선어였다. 그리고 이것은 통역을 통해 최소한의 소통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연안행’의 과정을 통해 김태준은 소리 없이 의미만 전달되는 서기(書記)의 묵어(默語)로부터 의미 없이 소리만 전달되는 음향(音響)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언어를 경험하고 수행하였다. 그런데 그의 ‘연안행’에서 조선어는 중국어와 일본어의 ‘망령’으로 존재하고 있었다.⁴⁴⁾ 제국 일본의 담론공간에서 조선어는 금지되어 발화될 수 없거나 혹은 지식의 연쇄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 김태준은 중국어, 일본어, 한문을 횡단하면서 의사소통을 하였으나, 조선어는 그의 마음 속에서 항상 사회주의

44) 사카이 나오키·니시타니 오사무(2009), 차승기·홍종욱 역, 『세계사의 해체』, 역사비평사, p. 133. 니시타니 오사무가 언급한 식민지의 크레올어가 가지는 ‘망령’이라는 개념을 참조하였다.

를 재현하는 진리언어인 일본어와 중국어의 ‘음화(陰畵)’로서만 존재하였다. 그리고 파시즘에 대항하는 공동전선과 국제주의의 따뜻한 동지애 속에서 비로소 조선어는 최소한의 소통 가능성을 얻게 된다.

그런데 김태준이 돌아온 해방공간의 조선은 정확한 언어의 번역이 요청되는 시기, 혹은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번역이 가장 의심을 받던 시기였다.⁴⁵⁾ 가령 김태준이 박헌영을 수행하여 평양을 다녀온 직후, 박헌영은 자칭 뉴욕타임즈 특파원인 존스톤과의 인터뷰에서의 ‘조선의 소련편입’ 발언으로 인해 1946년 1월 내내 곤혹을 치러야 했다. 당대 신탁통치에 대한 조선 민중의 반감 속에서 박헌영은 곤란을 겪었는데, 이때 존스톤은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박씨와 나와는 영어로 말하였으니 당신네들은 몰랐을 것이요.”⁴⁶⁾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해방공간은 동아시아의 여러 언어가 영어와 소련어라는 양극의 권력 속에서 그 위치가 재편되는 시기였고, 또한 그것의 정확한 통/번역이 요청되는 시기였다. 또한 1946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 창립 21주년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는데, 이것은 조선어를 알아듣지 못한 중국인들 앞에서 박진홍이 불렀던 애국가와는 전혀 다른 발화의 맥락에 놓여 있었다.⁴⁷⁾ 앞서 보았듯, 김태준을 비롯한 이들은 ‘파시즘’과 ‘민주주의’의 대결이라는 인식들로 해방전후의 연속성을 가늠하고 있었으나, 언어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해방전후의 불연속성이 있었다. 그리고 『연안행』은 해방공간 당대에 이미 망각되기 시작한 전시기 동아시아 언어의 복합적인 상황과 연대 및 소통의 가능성을 증언하고 재현하였다.

45) 냉전과 통역 체제의 성격에 관해서는 조은애(2015), 『통역/번역되는 냉전의 언어와 영문학자의 위치 - 1945-1953년, 설정식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5,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참조.

46) 임경석(2003), p. 274.

47) Ibid., p. 317.

4. 문학의 위치와 아포리아: 이성과 감정, 지식(인)과 민중

연안행을 준비하면서 김태준은 자신이 10년 동안 수집한 역사 및 문학의 자료와 고서를 ‘양심적인 부호’ 홍 씨에게 넘기고, 그 대금인 2만원으로 자신의 탈출경비를 마련하였다. 김태준과 박진홍은 탈출 과정에서 책을 소지할 수 없었고, 이 점에서 그들은 기존의 지식과 문학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동을 실천하였다. 연안행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지식의 위치와 그 아포리아를 점검할 두 가지 경험을 만나게 된다. 하나는 지식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재발견이었고, 또 한 가지는 지식인과 민중의 관계에 대한 재발견이었다.

지식과 감정의 관계는 김태준과 박진홍, 두 사람의 대화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아무 책을 휴대하지 못한 채 국경을 건넌기에 김태준과 박진홍은 이전의 독서에 대한 기억에 의지하여 그 지식을 거듭 저작(咀嚼)하였다. 이때 그들의 독서경험은 동서고금의 것을 포괄하였다. 가령 김태준은 산해관을 통과하자 “오자서(伍子胥)가 소관(韶關) 통과하노라고 하로 밤에 백발(白髮)이 되었다는 열국지 고사”를 떠올려 그것을 박진홍에게 들려주기도 하였다(②:186).

봉천역을 떠날 때는 홍C가 전송해주었다. 홍C는 맑은 맵시에 순수한 도령님이다. 그는 우리 부부의 밀월여행을 여행형태로서는 최대의 「로맨티시즘」이라고 희롱하였다. 그는 가장 문학을 조와하였다. 나의 안해 P와는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애국자 망명객 이야기를 장시간 계속하고 있었다. P는 틀게네프의 「전날밤」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망명청년을 사랑하다가 그 청년의 조국 불가리아에 몸을 바치든 이야기며 큐리 부인 이야기를 자미스럽게 전개하는 것이다. (②:182-183)

봉천을 떠날 무렵 박진홍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생산되고 읽힌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언급하는데, 하나는 퀴리부인에 관한 이야기이며 또 하나는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밤』이었다. 당시 총독부의 문화정책에 따라 식민지 조선의 학교에서는 전쟁담, 위인전, 영웅전 등이 권장되었으며, 퀴리부인의 전기 또한 그중의 한 권이었다. 일본에서 출간된 『キリ婦人傳』은 연전 출신 의사인 김명선으로부터, 기생 출신 인기 가수 왕수복을 거쳐 여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조선의 여성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또한 춘성 노자영은 펄 벅의 『대지』와 에바 퀴리의 『퀴리 부인』 등을 한데 묶어 『금색의 태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출간하기도 하였다. 퀴리부인의 전기는 ‘직분충실 → 고난극복 → 조국봉사’의 서사로 구성되는데, 퀴리 부인은 러시아 통치 하의 폴란드에서 연구를 위해 프랑스로 이주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그를 이민자로, 일본에서는 직분에 충실한 ‘국민’으로, 조선에서는 ‘식민지인’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였다.⁴⁸⁾ 전시기 식민지 조선의 독자들은 퀴리부인에 약소민족의 설움을 겹쳐 읽으며, 그가 프랑스로 옮겨가 과학이라는 보편의 이념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박진홍 또한 퀴리부인의 ‘월경’에 주목하였다.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밤』의 등장하는 러시아 여성 엘레나는 터키의 지배 하에 있던 불가리아의 청년 인사로프를 사랑하여, 결국 그가 유명을 달리하자 인사로프의 조국인 불가리아 해방을 위해 일생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에 인사로프는 자신이 조만간 러시아를 떠나 “머나먼 타역(他域)”에 갈 것을 말했고 엘레나는 “당신의 하시자는일이면 죽는데까지라도” 따르겠다고 고백하였다.⁴⁹⁾ 특히 이 소설은 1924년 포석 조명희가 번역하여 신문에 연재하였고, 1925

48) 김성연(2011), 『‘새로운 신’ 과학에 올라탄 제국과 식민의 동상이몽 - 퀴리부인 전기의 소설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4, 한국문학연구학회; 박진영(2012), 『한국 최초의 세계 문학 전집 기획 (2) - 세계 문학 전집을 광고하다』, <http://bookgram.pe.kr/120169211286> (검색: 2016.4.29.).

49) 조명희(1925), 『그 전날 밤』, 박문서관, p. 155.

년 박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당대 독자와 문학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조명희가 『낙동강』을 창작하는데도 큰 영감을 주었다.⁵⁰⁾ 『그 전날 밤』은 사랑과 식민지의 해방을 위해 국경을 넘는 이야기였고, 그 소설의 번역자인 조명희 역시 해방을 위해 국경을 넘은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문학이라는 지식의 현장성과 낭만성은 더욱 강조되었다.⁵¹⁾ 박진홍은 자신들의 월경에 퀴리부인의 이야기와 투르게네프, 그리고 조명희를 겹침으로써, 식민지의 경계 넘기와 사랑을 겹쳐 읽었고 그 것으로 위로를 삼고 힘을 얻고 있었다.

이날 또 한가지 불행은 나와 P사이에 일대논쟁이 일어난 것이다. 논쟁의 경과와는 이렇다. P가 영국황제의 심부신 부인 사랑한 것을 극도로 예찬한 남아지, 그것을 마치 P는 내가 너머도 이지적이어서 애정의 세계를 이해못한다고 야유하는 것같이 들렸기 때문에 나는 P의 연애지상주의에 일격을 가하자 P는 나에게 적당한 비례로 이지와 감정이 그리고 도덕과 애정이 계급적으로 통일된 부부생활이 아니면 참다운 부부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적어도 P의 요구하는 나는 좀 더 풍부한 정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봉건적 이념에 사로잡힌 생활과 표정의 결핍이 P에게 접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했다. (③:99)

김태준이 여정 곳곳에서 이지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⁵²⁾ 『연안행』에서 김태준과 박진홍은 이지와 감정, 혹은 도덕과 애정의 대립을 분유(分有)하며, 양자의 긴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

50) 손성준(2014), 『조명희 소설의 외래적 원천과 그 변용』, 『국제어문』 62, 국제어문학회.

51) 조명희는 1938년 일본 스파이의 누명을 쓰고 처형되지만, 1946년 당시 조선에는 그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다. 『문학』 2호의 권두 광고 중에는 건설출판사의 『낙동강』 광고가 있다. “18년 전에 조선을 떠날 적에 남기고 간- 그 당시에도 찬양을 많이 받은 걸작들로 나오자 바로 발금되었던 걸작이다.”라고 소개되어 있다. 조명희는 식민지 해방을 위해 조국을 떠난 작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었다.

52) 이해영(2006), pp. 99-106.

다. 그리고 박진홍이 주장하는 감정과 애정을 통해, 김태준이 추구하는 이념과 이지는 비로소 ‘생활’과 ‘표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위의 인용에서 양자의 통일은 이상적인 부부생활이라는 맥락에서 등장하지만, 이성과 감정의 긴장과 그것을 자원으로 삼은 새로운 삶의 기획과 실천이 부부생활에 한정되는 원리는 아닐 것이다. 이들은 일상과 실천을 혁명의 자원으로 삼을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였다.⁵³⁾

‘연안행’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논점은 지식(인)과 민중의 관계, 그리고 이를 통해 문학이라는 근대지식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문제이다. 김태준이 만난 최초의 팔로군은 그를 심문한 장중쇄이[張中水]였다. 이 방에서 온 조선인들을 무척 살뜰히 살폈던 그는 “사년간 민병으로서 실천에서 훈련된 사람으로 별로 학교 교육도 못받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명량한 성격, 불타는 학습열이 오늘날의 그를 일우게 한 것”이었다고 김태준은 평하였다. ‘홍군에 입대한 후 비로소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운 소년과의 만남’은 에드가 스노우도 인상적으로 서술하였듯, 홍군에 대한 존중에 근거한 전형적인 재현 중 하나였다.⁵⁴⁾ 제도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않고, 삶과 삶, 곧 지식과 실천을 일치시킨 장중쇄이로부터 김태준은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받는다. 이것은 그와 함께 가고 있던 조선 의용대에 대한 그의 불만과도 표리를 이루는 것이었다.

53) E. P. 톰슨(2013), 변영출 역, 『이론의 빈곤』, 책세상, p. 111. 1930년대 중반 임화는 관조주의로부터 고차적 리얼리즘으로 발전하기 위한 일 계기로서 낭만주의론을 요청하였다. 또한 자신이 주장한 “『레알리즘』이란 결코 주관주의자의 무고처럼 사화(死化)한 객관주의가 아니라 객관적 인식에서 비롯하여 실천에 있어 자기를 증명하고 다시 객관적 현실 그것을 개변(改變)해가는 주체화(主體化)의 대규모적 방법을 완성하는 문학적 경향”이라고 역설하였다. 임화(1940), 『사실주의의 재인식』(1937), 『문학의 논리』, 학에서, p. 94.

54) 에드가 스노우(1985), 신흥범 역, 『중국의 붉은 별』, 두레, pp. 73-74.

우리 대오 가운데 두 가지 조류가 있다. 하나는 학병(學兵) 출신. 책상물림 테리[sic-인테리]님들이 일반적으로 자고자대(自高自大)하고 농민 출신을 깔보고 학문을 좋아하고 이론만을 내세우는 버릇이 있고 하나는 학교 교육 받지 못한 농민 출신 동무들인데 그들의 개중에는 이론을 「주동이만 까는 것」라고 비웃고 배우는 것을 시기하는 경향이 있다. 김봉(金奉)을 미워하는 주철(朱鐵)의 심리는 이 표현인 것이다. 혁명적 이론을 떠나서 혁명적 실천이 있을 수 없고, 혁명적 실천을 떠나서 혁명적 이론이 있을 수 없으니 노농출신이니 테인리[sic-인테리] 출신이니 할 것 없이 이론과 실천의 통일, 사상과 생활과 행동의 통일, 지행합일이 되지 않으면 않될 것이라 하였다. (③:106-107)

연안으로 탈출하기 전 김태준은 조선 역사와 조선 문학 서적을 잠시 서랍 안에 봉하면서, 자신의 조선학 연구가 조선 민중의 아우성과 거리가 있음에 괴로워 하였다. 지식과 민중의 삶이 소외된 문제는, 김태준 홀로 발견한 문제는 아니었다. 비서구 동아시아에서 맑스주의의 수용은 지식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이것은 지식인과 민중의 사이에 지식과 실천의 균열을 배태하였다. 마오쩌둥 역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으며, 그가 「신민주주의론」에서 이중적인 문화정책을 기획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는 문화인, 청년, 학생 등 도시 소부르주아의 적극적인 실천을 요청하되, 그들의 실천이 무산계급을 대표하는 당에 의해 점검되도록 하였다.⁵⁵⁾ 또한 「연안 문예 강화」에서 마오쩌둥은 “많은 문학예술 일꾼이 대중과 유리되어 있고 생활이 공허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민의 말에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그들의 작품은 말이 진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종종 억지로 만들어 낸, 인민의 말과 대립되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어구들이 섞여 있다. 많은 동지가 ‘대중화’에 대해 말하길 좋아하는데, 대중화란 무

55) 丸川哲史(2010), 『魯迅と毛澤東』, 以文社, pp. 134-150. 마오쩌둥 역시 듣는 이의 지적 배경과 문식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수사와 표현을 사용하였다. Ibid., p. 147.

엇인가? 그것은 즉 우리의 문학예술 일꾼들의 사상·감정과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로 융합되려면 대중의 말을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⁵⁶⁾

비서구 맑스주의 지식의 위치라는 역사적이며 규제적인 조건 앞에서 김태준은 이론과 실천, 그리고 사상과 생활의 통일이라는 문제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요청과 반성은 그가 최초로 만난 팔로군, 곧 무학(無學)이었으나 불타는 학습열을 가졌던 한 팔로군 병사로부터 계기를 발견한 것이었다. 김태준의 기획은 문학이라는 지식의 위치 자체의 재조정을 요청하게 된다.

김태준은 ‘연안행’을 통해 이성과 감성의 관계, 그리고 지식(인)과 대중의 관계라는 문학의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였다.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은 조선학과 관련된 서적을 상자에 봉한 김태준의 고민에 닿아있기도 하지만, 좀 더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1920-1930년대 프로문학이 활발히 창작되던 와중에 제출되었던 문학사적인 자기 성찰에 닿아있기도 하다.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는 외래의 지식으로 수용된 이래, 송영과 임화를 비롯한 문학자들은 감성과 이성, 앎과 실천의 거리를 인식하였고, 또한 김기진과 비평가들은 문학의 대중화 문제를 고민하면서 가능한 문화적 실천을 기획하였다.⁵⁷⁾ 카프 해소 이전 프로문학자들의 문학사적 고민은, 전형기를 넘어 김태준과 박진홍이 ‘연안’으로 가는 도중에서 다시금 질문되고 있었다.

56) 모택동(2007), 김승일 역, 『연안 문예 좌담회에서의 강연』(1942.5.), p. 81.

57) 최병구(2013), 『본성, 폭력, 사랑: 정념의 서사로서 프로문학의 조건(들)』, 『한국어문학연구』 61, 한국어문학연구회; 손유경(2008), 『입화의 유물론적 사유에 나타나는 주체의 위치(position)』,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회; 신두원(1991), 『입화의 현실주의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차승기(2015),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대중화』, 『한국학연구』 3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5. 결론

결국 「연안행」은 완결되지 못하였고, 김태준과 박진홍이 연안에서 무엇을 보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증언은 담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안행」을 하나의 완결적인 작품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그 부분부분이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사유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읽어줄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보았듯 「연안행」은 태평양전쟁기에 열린 동아시아의 복합적인 언어 공간에 대한 경험과 문학이라는 지식의 위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담고 있다.

김태준에게 해방공간은 ‘망령’으로 존재했던 조선어문(학)이 활성화되는 공간이자, 문학이라는 근대지식의 탈구축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연안행」의 첫 회분이 실린 조선문학가동맹의 기관지 『문학』 1호에는 「제1회 문학자대회결정서」와 서기국이 작성한 「조선문학가동맹운동사업개황보고」가 함께 게재되어 있다. 보고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개최한 문예강연회로부터 조선전국문학자대회의 결의와 조선문학가동맹의 성립에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문학운동과 조직적 실천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완성성립’되었음을 힘써 강조하였으며,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과정에서 조선문학의 자유스럽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1) 일본제국주의 잔재의 소탕, (2) 봉건주의 잔재의 청산, (3) 국수주의의 배격, (4) 민족문학의 건설, (5) 조선문학의 국제문화과의 제첩(提捷)을 기본강령으로 천명하였다.⁵⁸⁾

조선문학가동맹의 진보적인 민족문학이 ‘국수주의’로부터 스스로의 거리를 두고 있음도 눈여겨볼 대목이지만, (4) 민족문학의 건설에 더해 (5) 국제문화과의 관련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 또한 누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해방공간 조선문학가동맹의 민족문학론은 ‘나라 만들기’라는

58) 서기국(1946), pp. 147-148.

일국적 관점에서 이해되었다. 이는 『문학』 1호의 여러 평론이 ‘민족문학’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민족문학과 국제문학과와의 관련이라는 문제는 또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멀리는 1930년대 중반 카프 해산 이후 사회주의 문학자들이 마주한 전형기(轉形期)의 첫 논제가 국제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 사이의 관계였다는 점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며,⁵⁹⁾ 가까이는 제2차세계대전을 반파시즘국가와 민주주의국가들의 대립으로 이해하고, 반파시즘의 전선(戰線)에 섰던 지식인들의 공통기억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에서 출발하여 연안을 향해 국경을 넘어간 김태준의 ‘연안행’이 그러한 국제적인 인식의 가능성과 실천의 예를 보여준다. 『연안행』이 실린 『문학』 제1호는 조선문학가동맹의 ‘민족문학’론이 내포하고 있는 동아시아적 계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명선이 중국신문학 혁명에 대한 글을 기고하였으며, 김사랑과 마찬가지로 태항산에서 투쟁의 경험을 가진 김학철 역시 소설을 기고하였다. 김학철의 생애사에서 그가 조선 반도 안에서 활동하였던 것은 해방공간이 유일하였다.⁶⁰⁾ 조선문학가동맹의 ‘민족문학’을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재고하는 문제는 이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그러한 과제를 염두에 두면서, 이 글에서는 해방공간 김태준의 문화적 실천이 그 자신이 ‘연안행’에서 성찰한 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59) 1934년 임화는 언어에 주목하여, ‘민족적인 것’을 통해 ‘진정한 국제적인 것’이 실현할 조건을 탐색하였다. 김재용(1999), 『임화의 이식문학론과 조선적 특수성의 명암』, 『문예연구』, 1999.6.

60) 해방공간 김학철은 홍명희를 만나기도 하였다. 이때 김학철은 『임꺽정』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홍명희에게 질문하였는데, 홍명희는 황천왕동이 나중엔 중국에서 황제가 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강영주(2015). 『통일시대의 고전 『임꺽정』 연구』, 사계절, p. 62). 홍명희가 김학철이 중국에서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담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동아시아라는 지역범주를 사유하였던 당대 문인들의 사고방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카프 10년간의 성과는 컸었다. (...) 그러나 당시 작품의 일반적 특징은 당시의 문예노선이 당시의 정치노선에 배합되어 있었던 만큼 좌경적 오류를 범하고 있었고 또 그 집필자들이 모두 전문대학을 졸업한 창백한 고급 인텔리들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은 민중적 입장에 서지 못하고 그 표현은 대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숙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처럼 민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쓴 글도 민중은 읽어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카프의 반역자들로 하여금 「얻은 것은 이데오로기요 잃은 것은 예술이다」라는 구실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모든 문학인들에게 외친다. 대중속으로 들어가자고, 몸소 대중의 일원이 되어 그 생활을 실천하고 그 감정과 의식을 바로 잡고 그 언어를 배우지 않고는 대중을 위한 문학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점에서 카프문학을 비판적으로 섭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온갖 과거의 문학유산을 재검토하여 계승하여야할 엄정한 시기에 당면하고 있다. 중국 최근의 작가들이 삼국지, 수호지, 열국지, 악무목전(岳武穆傳) 같은 고대 소설 속에서 현재의 정치사정에 비치여 가장 계몽하기 적절하다고 보는 항목을 떼서 삼타주가장(三打朱家莊), 진희(秦檜), 장의(張儀), 조원(弔原) 같은 각본을 써서 「구형식에 신내용이라」는 새로운 시험을 하는 것도 한 개의 묘안이다.⁶¹⁾

‘제1회 조선전국문학자대회’에서 김태준은 「문학예술의 정당한 계승방법」을 보고하면서, 그가 중국 연안에서 보았던 작가들의 문학적 실험을 기록하였다. 그는 프로문학이 민중과 괴리되었다는 것에 대한 문학사적 반성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제안하는 것은 ‘구형식에 신내용’이라는 그 이전 근대문학으로서 한국근대문학이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시험”이었다. 물론 ‘구형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문학을 요청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서구적/외래적 형식

61) 김태준(1946), 「문학예술의 정당한 계승방법」,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pp. 134-135.

(Western/Foreign Form)’과 ‘지역적인 원료/현실(local materials/reality)’의 결합이 근대 소설의 ‘전형적인’ 발생(the ‘typical’ rise of the novel)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⁶²⁾ 김태준의 보고는 근대문학의 외부를 요청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찍이 김태준은 한문학의 혁신과 국문학의 발전이 교차하는 지점에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배치하고, 그 혁신성과 문학사적 의미에 주목한 바 있다.⁶³⁾ 그에게 근대문학으로서 ‘민족문학’의 이념은 자기동일성을 유지하고 그것에 안주하고 유지하는 것이기 보다는, 외부의 실재와 대면함으로써 자기부정의 운동성을 가진 것이었다. 1930년대 중반 김태준이 한국근대문학을 논의하면서 중국 신문학을 하나의 참조체계로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⁶⁴⁾ 그리고 해방공간에서 김태준이 근대문학의 외부를 요청한 계기이자 ‘근거지’⁶⁵⁾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연안행’에서 발견한 민중이었다.

해방공간 박진홍의 실천 또한 ‘민중’의 현실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성찰할 기반 위에서 수행되었다. 1945년 박현영의 『8월 테제』가 제안한 계급투쟁의 일익으로서 여성 운동의 기획은 이념의 정당성을 성취한 것이었지만, 당시 여성의 문맹률이 높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

62) Franco Moretti (2013), *Distant Reading*, Verso, pp. 52-54.

63) 류준필(2014),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조선문학사’ 인식과 그 지정학적 함의』, 『한국학연구』 32,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pp. 121-122.

64) 박성창(2015), 『한·중 근대문학 비교의 쟁점 - 이육사의 문학적 모색과 루쉰』, 『비교한국학』 23-2, 국제비교한국학회, pp. 169-171.

65) 근거지의 개념은 다케우치 요시미의 개념을 참조하였다. 그는 ‘적은 강대하며 나는 약소하다’라는 인식과 ‘나는 불패이다’라는 확신이 모순의 조합을 이룬 것이 마오쩌둥 사상의 근본이자 원동력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이 현실화된 장소로서 ‘근거지’를 이해하였다. 그는 ‘근거지’를 “상대하는 힘들이 균형을 추구하며 움직이는 장(場)”으로 이해하였으며, 스스로의 에너지를 자생하며 외부와 충돌하며 운동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 근거지는 세계적 규모와 민족적 규모로도 존재하지만, 궁극의 장은 개인에 위치하게 된다. 다케우치 요시미(2011), 윤여일 역, 『『평전 마오쩌둥』(초록)』(1951), 마루카와 데쓰시 외편, 『다케우치 요시미 선집』 2, 휴머니스트, pp. 275-286.

계가 있었고, 그 결과 ‘계몽’이라는 문제를 누락하였다.⁶⁶⁾ 하지만 1946년 박진홍은 봉건인습에서 벗어나서 남녀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권리의 획득 뿐 아니라, 여성이 스스로 ‘민주주의적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⁷⁾ ‘민중’이라는 계기를 통해 근대문학의 위치를 재조정하고자 한 김태준의 기획과 여성의 현실로부터 여성 운동의 방향을 재조정한 박진홍의 제안에는 이성과 감성, 그리고 지식과 민중의 관계를 재조정하였던 ‘연안행’의 경험이 관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문학가동맹의 ‘대중화’론과 몇몇 문학자들의 실천을 제의한다면 그러한 문화적 실천은 충분히 현실화되지 못하였으며,⁶⁸⁾ 김태준은 문학이라는 지식의 탈구축은 잠시 미루어두고 남로당의 문화정책과 전술에 따라 ‘현실변혁’의 길로 나아갔다.⁶⁹⁾ 김태준이 가지 않은 길을 상

66) 김남식(2012), 「박헌영과 8월 테제」, 임종국 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한길사, p. 144.

67) 박진홍(1946), 「민주주의와 부인」, 『민주주의십이강』, 문우인서관, pp. 64-66.

68) ‘민중’이라는 계기로 해방공간 조선문학가동맹의 기획과 실천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쟁터와 문식성(文識性)이라는 시각에서 엄홍섭을 재론한 김윤진(2016)은 그러한 연구의 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해방공간 임화의 사상에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서 ‘인민’의 존재는 표면적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으나, 전체 사상의 숨겨진 주춧돌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김태준의 「민주주의와 문화」와 걸음을 함께 하며 임화는 “민족형성의 기초인 이 인민전선에 있어 노동계급의 이념은 모든 인민이 자각적으로 결합되는 매개자”라는 논리를 제시하며, 민족문학론을 통해 근대성의 성취와 근대 극복을 동시에 요청하였다. 임화(2009), 「민족문학의 이념과 문학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문학』3, 1947.4.), 『임화문학예술전집 5-비평2』, 소명출판, p. 467; 장용경(2010), 「해방 전후 임화의 정치우위론과 문학의 독자성」, 『역사문제연구』 24, 역사문제연구소, pp. 227-228; 신승엽(2000), 『민족문학을 넘어서』, 소명출판, pp. 132-143; 신승엽(2007), pp. 142-144; 하정일(2009), 「마르크스주의의 귀환 - 임화의 「민족문학의 이념과 문학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를 중심으로」, 임화문학연구회 편, 『임화문학연구』, 소명출판, pp. 165-168.

69) 남로당의 문화정책과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화적 실천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김윤식(2006), pp. 22-30.

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1930년대 중반 김태준과 조선 연구에서 같은 걸음을 걸었으나 해방공간의 실천에서는 다소간 결이 달랐던 백남운의 사례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시기부터 학계를 중심으로한 민족통일전선을 요청한 백남운은 국제노선을 표방한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연합성신민주주의를 제시하며 폭넓은 좌우협작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⁷⁰⁾ 백남운은 박헌영이 인민전선을 포기했을 때에도 애매하나마 통일전선론을 견지하였으며, 특히 그의 <민족=주체>의 추구는 항상 민중과의 교감 중에 있었다.⁷¹⁾ 그가 결국 북을 선택한 것은 1948년 4월이었다.

에드가 스노우는 자신이 만난 홍군에 대해서 “이들이 때때로 범한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들의 지나친 행위가 몰고 온 결과가 아무리 비극적이라 하더라도, 또 이들이 강조하고 역설한 내용이 아무리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진실로 통감한 선전목표는, 중국 농촌의 수백만 인민들을 흔들어 깨워서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고, 이들에게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신념을 일깨우며, 도교와 유교의 정적인 믿음과 이에서 연유한 소심함과 수동성을 떨쳐 버리도록 싸우게 하고, 또 교육과 설득, 때로는 분명 괴롭힘과 강제를 통해 중국의 농촌에서는 새로운 생각인 ‘인민의 통치’를 위하여 투쟁하며, 아울러 정의와 평등, 자유,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는 삶을 위해 싸우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썼다.⁷²⁾ 해방 후 김태준은 “8·15 이후의 문학운동은 이 급변

70) 1945년 12월에서 1946년 1월 박헌영을 수행하여 북한에 간 김태준은 연안에서의 인연으로 독립동맹의 지도자인 김두봉, 한빈 등을 만났으며, 38선 이남의 독립동맹 책임자로 백남운을 추천하였다. 또한 서울로 돌아온 이후 백남운에게 독립동맹의 창당을 권유하였다. 박병엽 구술(2010), pp. 248-249.

71) 洪宗郁(2014), 『白南雲 - 普遍としての<民族=主體>』, 『講座 東アジアの知識人 4 - 戦争と向き合って』(趙景達 他 編), 有志舎, pp. 120-121. 해방공간 백남운의 실천과 사상에 관해서는 방기중(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 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경제사상』, 역사비평사, 제3장 참조.

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 우에 어떻게 수립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정치에 있어서 인민적, 민주주의의 방향을 차저나가고 있는 바와 같이 문학에 있어서도 어느 특수계급계층의 문학이 아니라. 문학은 대중에게 해방하며— 아니 대중자신이 자기의 문학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새 시대의 새 내용과 새로운 정조를 표현한 문학은 반다시 이에 상응한 새로운 형식을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⁷³⁾ 하지만 문학이라는 근대지식의 탈구축을 요청한 김태준의 질문에 대해서 그 이후 한국근대문학이라는 글쓰기는 충분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김태준이 요청한 ‘연안행’이라는 미완의 유산이 ‘근대문학’이 종언한 지금에도 여전히 현재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민중’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해방공간 김태준이 제기한 질문을 탈구축하는 것은, “복합적인 집단 정체성, 민족계급-대중 사이의 충돌과 그것으로 환연되지 않는 틈에서 개인이나 새로운 타자성”을 발견하여,⁷⁴⁾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현실과 관련을 맺은 새로운 ‘글쓰기’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72) 에드가 스노우(1985), p. 150.

73) 김태준(1946), 『민주주의와 문화』, 『민주주의십이강』, 문우인서관, p. 56.

74) 천정환(2008), 『대중지성의 시대』, 푸른역사, p. 275.

참고문헌

【자 료】

- 김태준(1946-1947), 『연안행』, 『문학』 1-3.
_____(1946), 『민주주의와 문화』, 『민주주의십이강』, 문우인서관.
_____(1946), 『문학예술의 정당한 계승방법』,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_____(1939), 『증보 조선소설사』, 학예사.
_____(1937), 『문학의 조선적 전통』(下), 『조선문학』, 1937.7.
박진홍(1946), 『민주주의와 부인』, 『민주주의십이강』, 문우인서관.
유진오(1977), 『양호기』, 고려대학교출판부.
이만규(1946), 『여운형선생투쟁사』, 민주문화사.
임화(2009), 『민족문학의 이념과 문학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문학』 3, 1947.4.), 『임화문학예술전집 5-비평2』, 소명출판.
_____(2009), 『조선 민족문학 건설의 기본과제에 관한 일반보고』(『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1946), 『임화문학예술전집 5-비평2』, 소명출판.
_____(1940), 『사실주의의 재인식』(1937), 『문학의 논리』, 학예사.
_____(1937), 『복고현상의 재흥』(三), 『동아일보』, 1937.7.
조명희(1925), 『그 전날 밤』, 박문서관.
조선문학가동맹(1946-1947), 『문학』.

【논 저】

- 강영주(2015), 『통일시대의 고전 『임꺽정』 연구』, 사계절.
김계일 편역(1987), 『중국민족해방운동과 통일전선의 역사』 2, 사계절.
김남식(2012), 『박헌영과 8월 테제』, 임종국 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한길사.
김성연(2011), 『‘새로운 신’ 과학에 올라탄 제국과 식민의 동상이몽 -퀴리부인 전기의 소설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4, 한국문학연구학회.
김용직(2007), 『김태준 평전』, 일지사.
김윤식(2006),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_____(2003),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이중어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 김윤진(2016), 「해방기 엄홍섭의 언어의식과 공동체의 구상」,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학회.
- 김재용(2005), 「김태준과 민족문학론」, 염무웅 외, 『해방 전후, 우리 문학의 길 찾기』, 민음사.
- 류준필(2014),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조선문학사’ 인식과 그 지정학적 함의」, 『한국학연구』 32,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 박병엽 구술(2010), 유영구·정창현 편,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 선인.
- 박성창(2015), 「한·중 근대문학 비교의 쟁점 - 이육사의 문학적 모색과 루신」, 『비교한국학』 23-2, 국제비교한국학회.
- 박진영(2012), 「한국 최초의 세계 문학 전집 기획 (2) - 세계 문학 전집을 광고하다」, <http://bookgram.pe.kr/120169211286> (검색: 2016.4.29).
- 방기중(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 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 경제사상』, 역사비평사.
- 서중석(1991),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 손성준(2014), 「조명희 소설의 외래적 원천과 그 변용」, 『국제어문』 62, 국제어문학회.
- 손유경(2016), 『슬픈 사회주의자』, 소명출판.
- _____(2008), 「임화의 유폐론적 사유에 나타나는 주체의 위치(position)」,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회.
- 신두원(1991), 「임화의 현실주의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승엽(2007), 「김태준과 임화」, 『크리티카』 2, 사피엔스21.
- _____(2000), 『민족문학을 넘어서』, 소명출판.
- 윤대석(2015), 「가라시마 다케시(幸島驍)의 중국 현대문학 연구와 조선」, 『구보학보』 13, 구보학회.
- 이구영(2001), 『역사는 남북을 묻지 않는다』, 개마고원.
- 이애숙(2004), 「일제 말기 반과시즘 인민전선론」, 『한국사연구』 126, 한국사연구회.
- 이용범(2015), 「김태준 초기이력의 재구성과 ‘조선학’의 새로운 맥락들」, 『민족문학사연구』 59, 민족문학사학회.
- _____(2014), 「김태준과 귀모뤼」,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문학사학회.
- 이해영(2006), 『청년 김학철과 그의 시대』, 역락.
- 임경석(2003), 『이정 박헌영 일대기』, 역사비평사.

- _____(1991), 『국내 공산주의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전술(1937~45년)』, 한국역사연구회 1930년대 연구반,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길사.
- 장용경(2010), 『해방 전후 임화의 정치우위론과 문학의 독자성』, 『역사문제연구』 24, 역사문제연구소.
- 조은애(2015), 『통역/번역되는 냉전의 언어와 영문학자의 위치 - 1945-1953년, 설정식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5,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 차승기(2015),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대중화』, 『한국학연구』 3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 천정환(2008), 『대중지성의 시대』, 푸른역사.
- 최병구(2013), 『본성, 폭력, 사랑: 정념의 서사로서 프로문학의 조건(들)』, 『한국어문학연구』 61, 한국어문학연구회.
- 하정일(2009), 『마르크스주의의 귀환 - 임화의 『민족문학의 이념과 문학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를 중심으로』, 임화문학연구회 편, 『임화문학연구』, 소명출판.
- 홍종욱(2011),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그늘, 지식인의 전향』, 『사이間SAI』 11,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 홍종욱·후지이 다케시·임성모 외(2012), 『역사문제연구소 제41회 토론태당 - 전시기 조선 지식인의 전향』, 『역사문제연구』 28, 역사문제연구소.
- 다케우치 요시미(2011), 윤여일 역, 『『평전 마오쩌둥』(초록)』(1951), 마루카와 데쓰시 외편, 『다케우치 요시미 선집』 2, 휴머니스트.
- 모택동(2002-2007), 김승일 역, 『모택동 선집』 2-3, 범우사.
- 사카이 나오키·니시타니 오사무(2009), 차승기·홍종욱 역, 『세계사의 해체』, 역사비평사.
- 에드가 스노우(1985), 신흥범 역, 『중국의 붉은 별』, 두레.
- 요네타니 마사후미(2010), 조은미 역, 『아시아/일본』, 그린비.
- E. P. 톰슨(2013), 변영출 역, 『이론의 빈곤』, 책세상.
- 小林英三郎 他 編(1977), 『雑誌『改造』の四十年』, 光和堂.
- 洪宗郁(2014), 『白南雲 - 普遍としての<民族=主體>』, 『講座 東アジアの知識人 4 - 戦争と向き合って』(趙景達 他 編), 有志舎.
- _____(2011), 『戦時期朝鮮の轉向者たち』, 有志舎.

丸川哲史(2010), 『魯迅と毛澤東』, 以文社.

橫渠書院(2015), 『『論持久戰』在日本的傳播和巨大影向』, <http://www.coowx.com/p/gfezfd.html> (검색: 2016.4.29.).

Franco Moretti (2013), *Distant Reading*, Verso.

Walter Benjamin (1940), “On the Concept of History”, <https://www.marxists.org/reference/archive/benjamin/1940/history.htm> (검색: 2016.4.29.).

원고 접수일: 2016년 4월 15일

심사 완료일: 2016년 4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6년 4월 27일

中文摘要

金台俊与延安行

张纹硕*

这篇文章是为解读金台俊的《延安行》而写的。金台俊根据1946年南朝鲜劳动党与朝鲜文学家同盟的政治面貌记录了1944年11月自己逃到延安的旅程。延安行不但是主体的迁移，而且是语言与文本的横贯。他在越过国境中通过了一些东亚语言与文本互相交叉冲突的复杂语境。并且金台俊通过延安行探索了知识分子与人民，理智与情感等文学的基本条件与其难题。重新定义金台俊通过延安行发现的各种思维与实践契机是现今要解决的课题。

* 首尔大学 统一平和研究院 HK研究员